



청소년의 건강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금년도에 청소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하는 가장 효율적 투자 중 하나로 학교에서 실행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들고, 전략적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청소년이 주로 학교라는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학교가 청소년의 건강을 높이기 위한 수단 또한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가 청소년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또 하나의 촉구 메시지라 할 수 있다.

흔히 우리나라의 학교상황을 가르켜 "19세기의 시설과 20세기의 교사들이 21세기의 학생들을 길러낸다"는 말이 있다. 그나마 있던 운동장마저도 학교 건물을 늘리느라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마음대로 뛰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뿐 아니라, 대학 입시로 인해 운동하는 시간마저도 제대로 낼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 청소년의 체격은 좋아졌으나 체력은 현저히 저하되고 있어

우리 청소년의 생활이 이렇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과거에 비해 체격은 좋아졌으나, 체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지난 10월16일 우리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푸른 성장 마라톤 대회를 여의나루에서 개최하였다. 그런데 일부 청소년의 경우 굉장히 건강해 보였는데 5km조차도 제대로 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보면서 청소년 건강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 비만 권하는 사회

영국에서는 최근 어린이 비만을 줄이기 위해 정크푸드(junk food)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의 하원 보건위원회는 스포츠 스타나 유명연예인을 내세워 과자나 사탕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영국 보건부 장관은 "어린이를 겨냥한 시간대에 햄버거, 청량과자류, 감자칩 등 정크푸드들에 대한 TV 광고를 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유럽의 노력에 비하면 우리 사회는 쉽게, 어디서나 패스트푸드에 접하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고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일 뿐 아니라, 큰 비판의식 없이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더욱 큰 문제라 할 것이다.

● **외모지상주의 또한 우리 청소년을 병들게 해**
이와 더불어 요사이 유행어처럼 되어버린 '몸짱', '열짱' 신드롬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측면 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는 '날씬함'에 대한 강박관념을 온통 심어주어 청소년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여 거식, 폭식, 식이장애 등의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무리한 다이어트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충분한 영양 섭취를 가로막아 기능장애, 우울증, 자아 존중감 상실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 **한편으로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한쪽에서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비판을 걱정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라는 단면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하여,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 요청 시에는 청소년

년의 건강권부터 시작하여 학습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시·도에 구축되어 있는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개편·확대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청소년 체력 증진을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사교육이 보편화 되면서 거의 온 하루를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건강 모두 황폐해져 가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 경제참여활동 인구수가 경제 발전에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요즘, 청소년기부터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 경쟁력에 있어서 더욱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 면에서도 심각히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청소년 건강의 문제를 이제부터 국가와 사회가 하나하나 챙기고,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가을 하늘 만큼 우리 청소년도 푸르게,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